

이 몸은 하나님의 몸이므로 정결하게 잘 간직해야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장소에 들어가는 일을 삼가라. 오래 있으면 오염된다.

이슬이 내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 다른 건 폐일언(蔽一言)하고 이슬이 내리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천 년 동안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 하나님이 백만제단, 승리제단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아 전부터 이빨을 쭈시건 말건 영생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을 한다며 이유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도 합리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논리를 논하고 또한 성경적이면서 또한 이제 불경학적인 것을 논한다면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똥을 싸고 매달릴 것을 쳐도 진짜인 것입니다. 이슬이 내린다면 말합니다. 그래서 불경에는 수 천 년 전부터 바로 이슬 내리는 사람이 생미복되고 그 이슬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수 천 년 전, 예수 나타나기 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슬 내리는 사람이 구세주요, 이슬은 땅에서 죽음을 내어주리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고서일수록 이슬을 이렇게 중시하고 있는데 오늘날 승리제단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말로 이거야말로 우리가 엄청난 영광된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의심죄가 죽을죄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의심하는 것이 죽을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죽습니다. 의심을 한 번 하면 이제 그대로 천길 만길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귀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할 게 없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월등하게 이제 그대로 높은 차원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다른 데 없는 이슬이 내리고, 마음이 변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제단에서만 이런 역사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오자만 불쌍하게 됩니다. 결국은 온전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후 은혜를 쏟아버리고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련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또한 눈에 해태를 해 박아서 하얀 것을 파랗게 봅니다. 어저께 이 사람이 부산제단에 갔는데 기성교회 목사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 목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21일 동안 제단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뭐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그랬습니다. "과란 색안경을 쓰면 흰 것도 파랗게 보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색안경을 벗고 다시 21일을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얘기를 해 봐야 나라는 마귀가 말하는 것이므로 마귀 소리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가 말하는 것이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해 봐야 마귀 소리밖에 안



자유율법을 논하시는 구세주 조희성님

나옵니다. 21일 동안 나왔으면 이슬 내리는 것을 사진으로라도 봤을 겁니다. 이슬이 내리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온전한 말씀이 나오면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신을 모시지 않고는 온전한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윤치영 박사가 지금은 아인으로 계시지만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국회의장,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전국을 쪼랑쪼랑 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신임을 받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아주 큰 공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제단에 불뿔러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현관

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끌려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0이 넘은 사람인데도 축사의 말씀을 할 때 쪼랑쪼랑 말을 잘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른이라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백만제단(승리제단의 별칭)에 와서 축사를 할 정도가 되면 이 백만제단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걸 봐도 모르는 것은 멍텅구리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

이제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죽지 않는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피로 변해서 하나님이 된다." 하는 말씀이 과학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생긴 대로 노네." 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데, 생긴 대로 논다

는 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깎쟁이 성격을 가지면 얼굴이 깎쟁이 얼굴로 변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먹은 대로 피가 변하면서 그 마음 모양대로 얼굴도 변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는 것이 이게 지극히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을 하면 의심하는 순간 피가 확 씩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 댁서 영생을 얻는데 자기만 의심죄를 짓고 마귀(사망의 신)에게 끌려가서 죽으면 자기만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씩음으로 말미암아 죽는고로 피가 씩지 않는 비결은 영생의 확신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과 희생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을 짓을 하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게 되어 있고, 영생할 짓을 하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자유율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자유율법인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율법을 지켜서 이긴자가 됐던 것입니다.

자유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을 지켜야,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의 마음만 품어가지 사람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하는 말을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받아서 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씩은 다음에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마귀한테 씩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을 지키면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인고로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게 죄인데, 그게 무슨 죄냐면 죽을죄인 것입니다. 생각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을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피가 씩고, 내가 생각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목사한테 "개

는 개 소리하고 소는 소 소리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들린 사람은 마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의심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이 사람이 십 년 전에 공산주의를 얹었다고 그랬는데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태풍을 못 오게 한다고 그랬는데 태풍을 막고, 또한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단에 설 때마다 이슬이 내리고 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만 내리고 지금은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이슬 내리는 사람은 6000년 동안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영모님은 3년 반만 이슬을 내렸고, 그 다음엔 이슬 못 내렸습니다.

우리 제단 식구들은 백만제단에서 예배 보는 날부터 세상 다방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다방에 들어가면, 세상 마귀새끼들이 우글거리는 데 들어가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오염을 못 느끼는 건 그건 똥 구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다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냐 하면 풀이 아파서 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추시고 아파서 안 믿는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다방에서 주절거리고 한 시간씩 앉아 있을 정도면 그건 형편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의 몸이니까 정결하게 간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91년 8월 16일 말씀 중에서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나라는 자아의식(자존심)이 죄의 뿌리



사람은 어린 아기를 보면 누구나 입에 미소를 머금고 귀여워하고 좋아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어린 아기의 천진난만한 얼굴 모습에서는 악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또 어린 아기에게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뭔가 특별한 인간 본연의 순수본성을 간직하고 있어서다.

자아의식은 점점 강화된다

사람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거저거 계산하고 재보는 성격의 소유자로 변질되어 간다. 그러면서 점점 순수본성을 잃게 되고, 무의식 속에서는 그 마음의 분향을 그리워한다. 어린 아기를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는 중요한 까닭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성장해가면서 나라는 자아의식이 본래의 순수한 위치에서 벗어나 점점 왜곡 변질되어 뚜렷해지고 강화되어 간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솔하게 자아의식의 인지(認知)의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인간의 대인관계를 예로 살펴보자.

우리는 친구를 만날 때나 인면이 있었던 사람들과 만날 때, 흔히 그 사람을 오래 전 처음 만났던 인상으로 대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대한다. 사실 그 간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과정과 경험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변모되게 하였는가 하는 과정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채 말이다. 그저 과거의 고

착화되고 정제된 사람으로 오인한다. 상대방은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미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념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본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지 하고 과거 속 인물로 대한다. 쉽게 말해 과거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의 색안경을 쓰고 여전히 바라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아의식이 삶 속에서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단순히 지적 수준이 진화하고 발달해 가는 과정이라고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나라는 자아의식이 강화되고 독특해지면 강렬한 개성(個性)으로 굳어진다라는 게 문제다. 개성은 홀로 되기 쉽고, 관계의 유연성과 사회적 친화성이 떨어진다. 개성이 강한 사회가 될수록 소통이 단절되기 쉽고, 복잡 기이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 쉽다.

개성이 뚜렷해지는 사회현상은 많은 소리와 복잡한 의견들로 다원화되고, 독자적이긴 하나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회를 연출한다. 물론 여러 사람의 소리와 의견이 다양하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합되고 소통해 나가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세상 살기가 각박해진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요즘을 사회적 폐해 현상 중의 하나가 말이 잘 안 통하는 시대라고도 정의



누구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억이 나온다

하기도 한다. 왜 그런 것인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축과 경쟁의 시대 속에서 점점 이태산과 자기 육구의 탐닉에 빠져드는 자기중심적 사회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자기중심적, 개성의 성향이 강해지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몇 갑절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대방을 의식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해진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발달과 이상적(理想的) 정신(심리)상태의 도달을 꾀

하는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나'라는 자아의식, 곧 자존심이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주범이자,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악마의 화신이라는 연구의 성과를 여기저기서 입증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동서양의 고등종교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나'라는 자아의식이 고통의 산물임을 자각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을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해진다. 현대의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심리), 그 가운데서도 자아의식이 사람에게 있

어서 불필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 추상적인 정신세계를 과학적 사고로 뒷받침하느라 현대 심리학의 발달은 그렇게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나라는 자존심 자체 해내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죄가 된다는 정신세계를 속 시원히 설명해 주는 학문과 종교의 논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탓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집요하게 밝히고 들어가는 연구자와 각자(覺者)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가리워졌던 그 자존심의 정체를 서서히 걷어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자존심이 모든 악의 근본이다

예로부터 성인도 도인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예외 없이 나라는 자아의식을 사람에게서 빼버릴 것을 중용하였다. 나라는 자아의식이 없으면 얻을수록 몸은 가법고 정신은 만족과 평화의 상태로 안정되고 행복해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나라는 자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과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등 차별의식을 품지 않게 된다. 자아의식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다 좋은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이리저리한 차별과 분별에 의해 온갖 욕망과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못마땅함,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다툼, 살상 등 모든 악행의 열매가 자아의식, 곧 그 뿌리가 되는 자존심에서 나온다.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존심만 건드리면 무섭게 화를 낸다. 한 인간의 자존심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알아보려면 간단하다.

자존심을 건드리보면 된다. 나라는 자존심이 무서운 죄악의 원흉이라는 것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대변에 신경질과 욕설, 폭력, 살인 등 가져들이 악한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 대다수가 나라는 악한 감정의 본체, 자아의식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까닭이다. 곧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가시 돌친 사람, 폭탄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경전의 말처럼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서운 악이 나오는 것을 보아 자존심이 제 경전에서 마귀니, 악마, 사자귀신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비종교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 하겠다.

오늘날 왜 세상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세상이 되었냐고 탄식하여 묻는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 내의 모든 사건 사고의 주범은 다 자존심에 의한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정의하기를 '나를 버려라' '나를 이겨라' '나를 없애라'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